

#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채 금 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Decoration Culture resident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Keum-Seok Cha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12. 8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spiritual root of decoration and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and find the aesthetic meanings of the decoration culture inside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1. surveying the historical change about the aesthetic sense of Japan, decoration culture 2. deducing the distinctive aesthetic ideology from the decoration culture 3. finding esthetically the inside meaning of 1,2.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First, the origin of decoration culture was concerned with the belief in the life after death of the Buddhism culture to represent the noble society of the Heian(平安) period and the religion of paradise after the Middle Ages.

Second, this decoration culture based on two aesthetic ideologies, beautiful(艶) aesthetics and lofty(崇高) aesthetics. The beautiful aesthetics implies words, such as bewitchment, elegance, dignity and brilliance which stand for the sensual pleasure and the eroticism. The lofty aesthetics that was introduced by TakeTakasi(長高) during the Heian period, had the meaning of magnificence, greatness and dignity. This could be recognized as the Confucianism ideas.

Third, as the beautiful aesthetics that was the representative aesthetic ideology of the decoration culture, it was related to splendid and decorative designs, and was recognized as the beauty of brilliance and coquetry. The beauty of brilliance, as a decorative element, appeared in patterns of the traditional costume and dyeing as well as the beauty of coquetry indicated that the women's fashion in Japan had soft, feminine, and cute images, called Kawaii, by using various decorations, such as feminine details, flower patterns, ruffles, ribbons and so on. TakeTakasi's lofty aesthetics applied the beauty of

exaggeration to every art form. It has influenced the form exaggeration by overlapping in traditional costumes as well as the 1970s big look and layered look in Europe fashion. Issey Miyake and Takeda Kenzo introduced the decorative play, such as transformation and a distortion, which considered refinement, bluff, and oddity of the Japanese decoration art.

Key words : decoration(꾸밈), aesthetic meanings(미적이념), Japanese fashion(일본패션), beautiful(艶), lofty(崇高)

## I. 序 論

美에 대한 결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칸트의美學에 의하면, “美란 사람마다의 주체적, 감정적인 판단이므로 그 밑바닥에는 무언가 보편적인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다.<sup>1)</sup> 이러한 점에서 美意識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재한 보편적인 의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예술은 종교나 철학과 같이 다루어진다. 美의理念이란 美의 인식이 깊어질 때 하나의 비약으로 계시되는 것으로서 현실은 움직이는 이상적 원리, 각 시대에 추구한 혹은 추구해야할 전형적인 특성의 의미를 갖는다.

전 세계적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발전하고 있는 현대 일본 패션에는 그들이 살아온 삶과 예술, 종교, 철학을 통해 숨쉬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미학이 존재한다. 전통을 존중하며 外來的 요인과 절충적인 조화를 통해 지속 발전되어온 그들의 예술과 삶의 자세에는 각 시대를 통해 끊임없이 추구해온 그들만의 미적 이념의 독자적인 연구를 통한 창조적 향상심이 배어있다.

일본 예술 문화사에 내재된 미의식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면 ‘꾸밈’과 ‘반꾸밈’의 상반된 미의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본인의 미의식 중에 禪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 통념의 하나이나, 禪만으로 日本文化를 총괄할 수는 없다.<sup>2)</sup> 이 가운데 본 연구는 ‘꾸밈의 미의식’과 관련하여 1.꾸밈 미의식의 미적 이념에 내재한 정신사상의 근원을 살피고, 2.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난 꾸밈 미의식의 미학적 의미를 규명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꾸

밈 문화와 반꾸밈 문화로 대별되는 양면적 특성을 보이는 그들의 독특한 미의식에 내재한 미적 이념의 정신 사상적 근원을 再考하여 그들의 의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핌으로써, 세계 패션의 한 場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복식 문화에 전통이 깊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의 뿌리가 服飾文化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터득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의 패션문화 발전에 대한 각오와 자세를 다져보는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내용은 本報에서는 꾸밈文化和 관련하여 1. 일본 미의식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고 2. 꾸밈 문화를 대표하는 특징적 미적 이념을 도출하여 3. 이를 현대 일본패션과 연관시켜 그 내재적 의미를 미학적으로 살펴본다.

연구의 범위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현대 일본패션을 범위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연구의 시각자료는 객관성을 위해 의상 전문 교사 및 강사 20인이 판단하여 일본적 문양, 화려한 색상, 장식적 특징을 갖는 이세이 미야케, 하나에 모리, 다케다 겐조 등의 작품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II. 일본문학에 나타난 시대적 미의식의 변천

일본 문학사를 통해 예술문화에 나타난 미의식을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미적 이념이 특색을 가지고 다양하게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시대구

본에 따라 정신사상 및 시대적 정서에 의한 독자적인 미학이 탄생되었으므로 이를 정치사관에 의한 구분을 토대로 하여 고대, 중고, 중세, 근세로 대별하며 그 미의식의 변천을 살펴본다.

## 1. 고대(야마토:大和- 아즈카:飛鳥- 나라:奈良시대)

고대는 당나라 문물의 영향과 불교의 색채가 짙으며 고유문화가 신장된 시기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미적 이념인 마고토(眞事)는<sup>3)</sup> 참것(眞事), 참말(眞言), 깨끗함(淸), 밝음(明), 곧음(直)을 뜻하며, 밝음은 이성적, 깨끗함은 감정적, 곧음은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조화, 그것이 인간성으로서의 '진실'이면서 동시에 미적 성질인 것이다.

한편 '미야비(雅び)'는 나라시대 중기부터 형성된 미의식으로 이는 도회풍(都會風), 궁정풍의 세련된 고상함, 우미함 등을 의미하며 후대 헤이안의 귀족문화를 지탱하는 미적 이념인 '아와레(哀れ)'로 이어진다.

## 2. 중고시대(헤이안:平安시대, 794~1195)

헤이안시대는 '우아미'(優雅美), 섬세한 정취를 존중하는 귀족적이고 여성적인 국풍문화가 발달한 시대로서 일본美的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문인들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지닌 심연의 독자적인 미학을 탄생시켰다. 헤이안 시대 문예의 대표적 미적 이념인 모노노아와레(物の哀れ)는 감동을 나타내는 말인 '아와레'에서 나온 말로서 일본문학과 생활에 흐르는 이상으로 계승된다.<sup>4)</sup> 반면, 해학적인 것을 보고 웃고 싶어지는 감정을 말하는 '오카시'(可笑し)는 지적이며 밝고 화사한 정감을 일컫는 말이다. 아와레가 내면의 감동과 비애를 말하는데 비해, 오카시는 객관적·비평적으로 본 감동을 말하며 점차 익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sup>5)</sup>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정토교(淨土教)가 흥하고 美를 환상의 세계에서 구하는 자연관이 된다. 이에 따라 헤이안 시대의 감각적 경향의 미의식과 유미주의적인 생활관은 일본의 대표적인 두 개의 상반되는

미의식중의 하나인 꾸밈 미의식으로 형성된다. 또한 이 시대는 '다케다카시'(長高)라는 격조 있는 장대한 송고미가 文學의 이념으로 형성되어 꾸밈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 3. 중세시대(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 모모야마:桃山시대, 1192~1338)

중세시대는 민중의 독자적인 지혜를 살려간 시대로서 헤이안 왕조의 우아하고 화려한 과잉적 미의식이 귀족 왕조의 몰락으로 점점 쇠퇴해 가는 과정에 여정(餘情), 유현(幽玄)이라는 도회(韜晦)적 골격미로 전환되고, 다시 유심(有心)체라는 새로운 미의식으로 변화되어간다. 이는 다시 老將사상과 선종(禪宗)의 영향을 받으면서 센리큐(千利休, 1521~1591)에 의해 와비차(侘び茶)로 결실되고, '사비'(寂), '와비'(佗)라는 일본의 반꾸밈 文化의 미의식으로 탄생된다. 이는 후속연구로 이어질 예정이다.

노장사상에 의해 배양된 자유롭고 구애하지 않는 경지를 이르는 '無心'의 미적 이념은 불교사상, 특히 선(禪)다운 색채를 띄게 된다. 특히 중세에는 불교적인 장엄한 세계와 섬세한 감각의 궁극적 미적 이념을 낳았으며, 여러 영역에서 여정·여운으로서 혹은 요염·화려 혹은 담막(淡漠), 냉적(冷寂)으로서 추구된 유현미가 제아미에 의해 크게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근세에는 복합미의 특징을 보인다.

## 4. 근세시대(에도:江戸)시대, 1603~1903)

근세시대에는 신흥부자로 변신한 조닌(町人)들의 武人社會에 대한 저항감으로 인한 그들 중심의 취미와 미적 추구로 '이키'(粹)와 '시부이'라는 탐미주의를 낳았다. 이키는 헤이안 귀족문화의 문학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아와레나 유현, 우아하고 화려한 우(優), 염(艶)과 같은 미의식을 이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키란 촌스러움에 반대되는 세련된 도시적인 감각을 말하며, 유곽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어 아름다움이나 우아함과 다른 차원의 관능적인 매력을 갖는 미적 감각이며, 시부이는 수수하면서 깊고 뚝뚝함을 느끼게 하는 미의식이다.

<표 1> 시대별 미적 이념

	기초사건	미적이념	문화권	정신사상
고대	야마토(大和) 아즈카(飛鳥) 나라(奈良)	마고토(眞事) 미야비-귀족문화	귀족문화	佛敎
중고	헤이안(平安) 794~1195	아와레-모노노아와레 다케다카시 오카시	꾸밈문화	道家 佛敎(염세) 儒敎(도덕적)
중세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찌(室町) 모모야마(桃山) 1192~1338	여정 유현--와비, 사비 유십	꾸밈· 반꾸밈문화	老莊사상(道家), 佛敎 선종(禪宗)
근세	에도(江戸) 1603~1903	이키 시부이	꾸밈·반꾸밈문화 귀족문화(세련된 도시적 관능미)	老壯(中國風은둔)-老莊 유교(신도를 도덕화)

### III. 꾸밈 미의식의 미적 구조

일본 문학사의 흐름을 통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정신사상에 내재된 미의식의 변천 추이를 살펴보면 '꾸밈'과 '반꾸밈'의 상반된 미의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꾸밈'과 관련하여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는 일본 미술의 특성 중에 인상성, 장식성, 감상성, 상징성<sup>8)</sup>의 4가지 요소를 들고 있고, 다나카 하데미치(田中英道) 역시 일본 예술에 내재한 장식을 중시하는 미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꾸밈 문화에는 神仙的 고고(孤高)함과 밀교나 정토교의 화려하고 色 고운 세계의 현란한 음영이 존재한다. 본항에서는 일본의 '꾸밈 미의식'을 중심으로 나타난 미적 이념의 정신 사상적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꾸밈 미의식과 정신사상

미의식이란 미를 이해하고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의 감각과 경험을 말한다. 일본의 현란한 꾸밈 미의식을 발전시킨 이면에 종교 사상적 이념이 작용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한 면만을 취하기보다는 자극적인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래의 정신사상적 요소에 의한 경험을 통해 독자적 감각을 키워나갔다. 고대의 '신불유습합'사상과 종교이

후에 전해진 밀교, 정토교는 꾸밈문화를 창조하고 육성시키는 감각과 경험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 1) 신불유습합(神佛儒習合)思想

'신불유습합'이란 神道<sup>9)</sup>를 근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불교의 이념을 삽입시키고, 여기에 유교적 예절을 융성시킴으로써 현실적 번영을 이룩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신의 율법이나 종교적 계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래문화의 좋은 부분만을 취하는 습관을 체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衣, 食, 住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정치, 경제 등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요이(彌生:BC 3C~5C) 시대 고분에 발현된 독자적인 장식성은 死後세계를 위한 염원의 발현으로, 이러한 꾸밈의 열정은 6C중엽 들어온 장대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촉진되었으며, 토기 문양에 보이는 기하학적, 섬세한 미감은 일본 장식미술의 커다란 특색으로 계승되어 갔다. 금은이나 갖가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부처의 세계를 재현한 '장엄' 예술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된 정교한 장식물은 일본의 꾸밈의 문화에 흡수되었다.<sup>10)</sup> 이에 따라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정토왕래를 회구하는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은 온갖 재보를 쏟아 범 회장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는 내세의 영달을 염원하는 헤이안(平安)귀족의 '세속'을 벗어난 풍류를 즐기는 유희주의적 생활태도에 기인한다.

## 2) 진언밀교·정토교

밀교는 6~7C경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최후의 흐름으로 성립된 敎로서 '비밀교'란 의미이고 헤이안시대 초기에 전해졌다. 인간이 일정한 방법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움직인다면 神, 靈이 감응해서 人間에게 응해 온다는 논리로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밀교에서는 수법(修法), 의례(儀禮)가 발달하고 눈부시게 독특한 법구(法具)나 장식이 사용된다. 또 부처, 보살, 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방식(儀·軌)이 정해지고, 조상(彫像), 도상(圖像), 만다라(曼陀羅) 등 뛰어난 밀교 미술이 발달하였다. 사회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중요시한 밀교는 각 예술, 조형미술을 비롯하여 문예, 신기술 등과 결합되어 그 발달을 촉진하였다.<sup>11)</sup> 또한 헤이안 중기 이후 정토교가 일본에 전해짐으로써 일본인들은 내세(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귀족들 사이에는 혼란한 정세 속에서 밀교나 음양도로부터 현세이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염불로 심적 불안을 안정시키고 死後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토가 만연하였다. 그네들의 이러한 염원은 각종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원건축의 열기를 뽐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장식예술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sup>12)</sup>

## 2. 꾸밈 미의식의 특성

### 1) 꾸밈 미의식의 미적 이념

미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궁극적으로 하나의 비약으로서 계시되는 것을 미적 이념이라 한다. 온갖 미를 초월한 미의 이데아에 의해 새로운 미의 인식을 깊게 할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즉 미적 대상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형성된 개념을 이성적 통제에 의해 계시된 최고의 개념으로 모든 미적 경험을 통제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꾸밈 미의식의 미적 이념은 일본 꾸밈 문화의 현실을 통해 움직이는 이상적 원리, 각 시대에 추구해 온 미적 경험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꾸밈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일본 문화의 꾸밈 미의식은 신불유습합 사상에 흡수된 장대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촉진되었는데 고

대의 미야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헤이안 시대의 유미주의적 생활관과 관련이 깊다. 이 시대에 전해진 밀교, 정토교를 통한 내세의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은 눈부시게 장식적인 밀교미술을 발달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우미, 섬세(纖細)한 정취를 존중하는 귀족적이고 여성적인 섬세한 일본의 독자적 장식 문화를 형성시켰다.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 미적 이념인 '아와레', '오카시', '다케다카시'는 역사, 풍토적 영향의 차이로 그 미묘한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sup>15)</sup> 서양 미학의 '우미', 「유머」, 「승고미」와 비교되며 이는 풍류, 사치스러움, 허세, 괴상함, 본뜨기, 멋 등의 용어<sup>16)</sup>로 대변되는 일본 장식미술의 특징이다. 이상 일본사에 나타난 미의식의 변천과정과 정신사상을 통해 '꾸밈 미의식'의 대표적인 美的 이념의 특징을 ① 艷의 美學 ② 崇高의 美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艷의 美學- 화려미, 교태미

꾸밈 미의식의 근원은 奈良시대의 '미야비'(雅び)에서 찾을 수 있다. 万葉集의 노래말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미야비에 해당하는 한자는 '風流' 또는 '遊'로서 이에 호색적이고 도덕적인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미야비는 '아소비'(遊び: 노는 일, 여유)의 실제적 의미로서 일본의 神仙思想이 깊이 스며들어 있음이 감지되며, 이에 節世의 미녀를 연모하는 詩情속에 스며든 호색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sup>17)</sup> 미야비는 중국 先代王들이 남긴 분위기의 풍류(:遺風余流)와 같은 윤리적·政教的인 면과 好色·艷麗와 같은 감각적·유미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는데, 日本에서는 風流가 미야비로 전환되어 都文化를 중심으로 好色·艷麗와 같은 감각적·유미적 측면의 문화 이념<sup>18)</sup>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갔다. 이는 일본인의 정신문화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미적,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万葉集속에 미야비에 해당되는 風流의 의미는 궁정적, 도회적, 귀족적, 유락적인 예술취미로서 호색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선적 분위기와 연관된 세속의 멋진 생활태도와 도회적인 세련된 취향을 상징한다.<sup>19)</sup>

이러한 奈良時代의 미의식인 미야비는 헤이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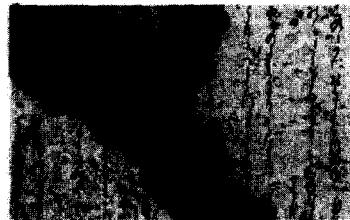
대로 계승되어 중국 정신사상에 벗어난 일본 특유의 우아(優雅)라는 '아와레'의 미적 이념을 탄생시킨다. 아와레는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내면으로부터 우리 나오는 품위있고 섬세하며 애수를 띤 느낌으로, 이를 통해 귀족적인 독자적 미를 완성하여 '미야비'의 美를 원숙하게 만개시킨다. 이는 현란하고 요염한 艷麗의 美學으로 형성되어 전개됨으로써 꾸밈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하게 된다. 즉 '꾸밈'의 美는 艶(艷)의 미로서 日本書記에는 '아름답다', 万葉集에는 '냄새를 맡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화려한, 품위 있는, 우아하다, 윤이 나다, 요염하게 되다" 등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말로 응용되어진다. 美를 쾌감이라고 한다면 艶은 감각, 관능적인 쾌감, 호색탐미(好色耽美)의 精神的 표징<sup>20</sup>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꾸밈의 장식미에는 이렇듯 관능적 요염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꾸밈의 미의식은 日本人의 호색미, 감각미, 관능미로 대변되는 艶의 美라 할 수 있다. 古代의 마고토(眞事)를 艶이 포함되는 '풍류'로 받아들였던 日本人의 神仙的 특성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사시대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하고 여유 없는 마음을 불교의 내세에 대한 厭원을 통해 이러한 장식적인 감각미와 관능미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꾸밈 미의식은 헤이안 시대에 복장, 저택을 비롯한 온갖 주변의 생활 용구를 금은이나 다양한 색채로 공들여 꾸미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세의 이익과 내세의 정토왕래를 회구하는 이 시대의 귀족들은 온갖 재보를 쏟아 범회의 모든 것을 화려하게 꾸미는 場으로 만들었다. 이는 헤케납경(平家納經) <그림 1><sup>21</sup>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불화에 금은을 정교하게 잘라 입히고 감각적인 색조를 가하여 요염하기까지한 탐미적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세이시대



<그림 1>

(院政時代:11세기末) 궁녀들은 금은박, 금은니, 금은 분말로서 아름답게 꾸며진 종이에 寫經을 하여 신사·사원에 경쟁적으로 봉납 하였는데, 종이의 장식미는 와카<sup>22</sup>의 색종이<sup>23</sup>나 책자에서도 발휘되었다. 일본장식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종이 장식은 자주, 남, 홍, 황, 흑 등 갖가지 색으로 물들이거나, 금은으로 꾸며낸 艶색지를 잘라 붙이기, 찢어 붙이기, 겹쳐 잇기 등으로 꾸미고, 비대칭적인 패턴을 만들어 전개<sup>24</sup>시켜 장식 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그림 2)<sup>25</sup>



<그림 2>

헤이안 시대 귀족들의 풍부한 재력과 특권으로 복식 역시 아름답게 치장되는 것이 주목적이 되면서 자연히 형식미나 색채미를 강조한 의례복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꾸밈의 장식적 요소는 역사적으로 복식 문양 및 艶색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무로마치(室町)시대의 무가들은 금란(金欄)과 금사(金紗), 금은박 등 금과 은의 찬란한 장식류를 출현시켰으며, 에도(江戸)시대의 카부키 의상은 '꾸밈의 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교태(嬌態)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아양부리는 자태'<sup>26</sup>이다. 이는 꾸밈 문화에 내재한 艶의 美意識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수줍으면서도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서도 애교를 느끼게 하는, 이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호기심이 내면적으로 적극성을 띠면서, 외면적으로는 오로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본인 특유의 은근미로 이해된다.

艶<sup>27</sup>의 미의식은 화려함과 연결지어 관능미와 감각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연의 풍물이나 기물 등에 관해 윤기나는 색채감이 넘치는 모양으로 人事에 관해서는 연애적 정서를 담은 품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艶은 중세 가학이나 일본 전통 무극인 노오가쿠(能樂)의 미적 이념인 '감

출수록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은폐의 미로서 관능적·감각적 표현과 연애적 정서의 염의 미의식이 이키의 질료인 男女間的 미태라는 정서로 뒷받침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꾸미고 장식하는 패션과 연관하여 '관능미(官能美)'의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교태미'를 선택한 이유는 일본 특유의 감수성에서 기인하였다. 시각적인 농염한 자태로 보다 적극적 감수성의 의미를 갖는 서양적인 관능미와 이 교태미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겐 전술한 '염려의 미'와 연관하여 수줍고, 절제되면서, 내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은근미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전통복-기모노의 뒷깃을 아래로 젖혀서 뒷목을 살짝 드러낸 모습에서 감지될 수 있다.

(2) 崇高的 美學 -과장미

헤이안 시대의 美的이념의 하나인 다케다카시(長高)는 '웅대하다', '위대하다', '기품이 있다'는 뜻을 지니면서 조용하고 속 깊은, 유수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이는 격조가 높고 장대한 느낌<sup>28)</sup>의 승고미로서 일본 중세문학의 이념이 되었다. 다케다카시의 웅대하고 기품 있는 미의식은 유교 문화적 영향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후풍토로 인한 생리적 측면에서 신체노출에 대한 욕구는 컸으나 유교 문화가 실어온 가치의식과의 갈등으로 그 욕구는 억압되어 왔다.<sup>29)</sup> 이는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은 남모르게 숨겨야 한다는 유교문화에 의한 도덕적 미의식이 日本에도 성립되어 있었음을 예증하는 것으로 헤이안 왕조의 귀족문화는 여인의 몸을 최대한 비단옷으로 감싸는 데에 그 기교를 다해 왔다. 헤이안 귀족들의 장식 의욕은 14세기 모모야마시대 무사들의 도를 지나친 허세로 이어진다.

무사에게 있어서 전투는 생명을 내건 싸움이면서 호화스럽게 꾸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 중세의 무사들은 전투에 합류하기 위해 상경할 때, 그 행렬은 말, 도구, 의상, 칼을 두르고 말 털을 갖가지 색으로 물들이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과시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미술은 무사들의 '과시' 정신을 담아 표현 면에서는 매우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것이 되었다. 그 예로 모모야마시대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가노에이토구(狩野永徳:1590년대 화가)가

미닫이문에 그린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실물 크기보다 나무 기둥을 방벽 가득히 채워 그린 거대한 표현에서 이들의 '허세 부림 꾸밈'<sup>30)</sup>에 의한 과장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꾸밈 미의식은 영웅주의와 귀족주의를 표방하며 왕조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던 모모야마시대 무사들의 허세에 의한 자기 과시의 극치로 연장된다.

무사들의 과장된 욕구는 다케다카시의 미적 이념을 통해 과장된 크기와 과잉 장식을 강조하는 일본의 전통복식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그림 3><sup>31)</sup>의 이 옷은 통소매의 문양이 물결치듯 어깨에서 소매 자락까지 힘찬 호선을 그리며 호방하게 전개되었으며 겹쳐 입은 옷매무새는 인체를 과장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헤이안시대 후기에 발달한 귀인계급의 복식 중 형태가 커지고 겹쳐 입는 착장 방식으로 된 것에는 일본의 기후가 풍토적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겠으나, 이 시기의 미적 이념인 다케다카시의 승고한 정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현대 일본 패션을 특징짓는 빅룩의 패션으로 승화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림 3>



<그림 4>

또한 헤이안 귀족의 감정에는 '명량함'의 측면이 내재한다. 이는 전술한 '오카시'의 미적 이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무사들은 전장에서 생명을 다투는 긴장감을 상대를 위협하는 듯 무시무시한 과장된 장식의 원동력을 이용하여 역설적으로 괴기스럽게 표현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시대 귀족들은 전투의 긴장감과 무료함을 색과 형태의 더할 수 없는 우아한 유희적 표현이나,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통해 '꾸밈'과 '유희'의 고차원적인 예술로 승화

시켰다. 특히 무사들 사이에서 유행한 '당세(當世)투구', '별종 투구' 등은 지나치게 기발한 장식물로서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그림4)<sup>32)</sup>

2) 꾸밈 미의식의 미적 범주

이상 일본 문인의 미의식의 변천사를 통해서 꾸밈 미의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艷의美學과 崇高의美學을 예시하였다. 꾸밈 미의식의 근원은 奈良시대의 '미야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는 '아소비'의 실체적 의미로서 일본의 神仙思想이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好色, 艷麗의 감각적, 유미적 측면과 도덕적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미야비는 헤이안 시대로 계승되어 일본 특유의 우아미인 '아와레'라는 미적 이념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현란하고 요염한 艷麗의美學으로 형성된다.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은 헤이안 시대의 격조 높고 장대한 느낌의 '다케다카시'라는 미적이념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일본 중세문화의 이념으로서 崇高의 미학으로 승화된다. 이를 통해서 일본예술의 특색은 감각적인 것뿐 만 아니라, 추상성이 강화된 그 내면에 장식 이상의 놀라운 힘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 조몬시대부터 보여 지는 일본미의 특징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나타나는 비대칭, 불연속성, 역균형, 색채의 대담성<sup>33)</sup>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또한 야시로 유키오가 지적한 일본 예술의 장식적 특성, 그리고 다나카 하테미치가 지적한 일본 예술에 내재한 장식중시 경향은 일본인의 꾸밈 미의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일본 디자이너들에

게 일본 특유의 장식미학으로 계승되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꾸밈과 반꾸밈 예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로서 특히 꾸밈에서는 艷의 미학에 내재한 화려함과 감각적 교태미, 그리고 崇高의 미학에 내재한 고도의 비합리적인 과장미로 표출되고 있다.

꾸밈 미의식의 미적 범주(範疇)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꾸밈 미의식의 성질적 차이를 몇 개의 종류로 구분함을 말한다. 이상을 통해 일본 문화예술에서 나타나는 꾸밈 문화의 장식적 미의 범주를 艷의 미학의 장식적 측면에서 화려미와 관능·감각적 측면에서 교태미, 崇高의美學을 유희적 측면에서 과장미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V. 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난 꾸밈 미학

1. 현대 일본패션의 일반적 경향

1970년대 일본디자이너들의 파리진출에 의한 활약으로 일본의 하이 패션계가 크게 급부상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패션은 인체를 중심으로 한 체형형의 서구 패션과는 전혀 다른 비구축적인 조형미의 빅룩, 루즈룩, 레이어드룩 등으로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션이 되었다. 이어 1980년대에 레이가와쿠보, 요지 야마모토가 주목을 받으며 오토쿠튀르의 구성의 미를 무시한 안

<표 2> 일본의 꾸밈 미의식의 미적 범주

		미적이념	美的形態	정신사상
艷의美	화려미	미야비 : 艷麗美 宮廷的 都會的 貴族的	장식성	불교: 내세염원 밀교: 극락정토 정토교: 극락왕생
	교태미	미야비 : 艷麗美 아와레-모노노아와레(優美(요염미)) 도회적 세련된 취향 관능적	감상성 장식성	
崇高美	과장미	다케다카시: 崇高美 종류 : 과장성 허세, 영웅주의 ↓ 오카시 : 유희성	상징성	유교: 도덕적 가치관



티쿠튀르적인 독특한 푸어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중패션의 대표적 경향은, 미니멀리즘, 빈티지, 가와이이(可愛い)패션이 대표적이며, 하라주쿠(原宿)를 중심으로 한 유희적 경향의 스트리트 패션, 시부야(澁谷)를 중심으로한 일명 '갬룩'(girl look)으로 불리는 '코가루'(コギャル)패션 등으로 대강 집약이 된다. '코가루'라는 말은 廣意로 '현역 여자 중고교생'을 뜻하는데, 특히 시부야 중심가를 활동거점으로 하는 10대 소녀들을 말한다. 코는 일본어의 코도모(어린이)에서, 가루는 영어의 girl의 일본식발음으로 '어린이 같은' 소녀가 사회적인 언어로 변형되어 "코가루"가 된 것인데, 이들은 인체를 강조하는 바디컨서스의 관능미를 강조하지만,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귀여운 캐릭터가 독특하다. 전위적인 젊은이들이 주말이면 하라주쿠 광장에서 펼치는 다양한 스트리트패션은 평크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화장에 각자 독특한 캐릭터의 만화나 게임의 인기등장



<그림 5>

인물의 우주복, 군복 패션, 베이비돌 룩, 아오자이패션, 의사, 간호사패션 등 일본만의 회화적인 유희적 특성을 갖는다.(그림 5)<sup>34)</sup>

한편 30~40대 여성들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에서도 소녀적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패션들에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주목되는

것은 소녀적인 귀여운 이미지인데 여성스럽고, 나긋나긋하면서 온화하고 조용하며 애잔한 이미지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절제된 관능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정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소녀 같은 수줍음의 요염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라주쿠와 시부야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볼 수 있는 회화적이고 유희적인 경향,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촌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히피 패션, 빈티지 패션 등의 푸어룩은 이미 80년대 유럽 하이패

션에서 콤포 데 가르송, 미야케 등을 통해 안티쿠튀르 패션인 패션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패션 성향들이 전술한 역사적으로 내재된 그들의 미의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꾸밈 미의식과 연관된 패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난 꾸밈 미학의 유형

好色, 艷麗의 감각적, 유희적 측면을 내포한 고대의 미적이념인 '미야비'는 헤이안 시대의 '우아'라는 미적이념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현란하고 요염한 염려의 미학으로 형성되어 현대 일본패션의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꾸밈문화의 미의식인 艷의 美에는 '우아한', '화려한', '품위 있는', '요염한' 등의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있으며, 이는 장식적 요소로서 복식 문양 및 염색에 화려하게 나타난다.

한편 '장식'을 뜻하는 일본어의 '꾸미다'(飾る)라는 말은 '飾L'의 동사 '飾す'에서 파생된 것<sup>35)</sup>이며, 이의 사전적 의미는 "꽃, 꽃가지 등을 관, 머리에 꽂다"인 장식적 꾸밈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일본 文化에서 장식의 의미는 막부말엽과 메이지(明治) 시대에 영어의 Decoration과 ornament를 번역한 것으로 중국의 옛말을 살린 것<sup>36)</sup>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꾸밈문화의 의미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意匠과 연관되며, 이에는 艷의 관능적인 요염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로서 현대 일본 패션에 나타난 꾸밈 미학의 유형을 화려미와 교태미, 과장미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화려미

일본 전통문양은 현대패션의 오리엔탈리즘에서 자주 응용되는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예술의 장식모티브로는 동·식물, 자연풍경, 생활도구, 문자 등이 상징성과 결합되어 기호로서 의미를 지님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적 표징물로 기모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섬세하고 화려한 색상과 함께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전통문양의 특징은 외형적 화려함으로 장식적 특징을 이루는데 이러한 전통적 장식요소를 현대패션에 응용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하나에 모리(Hanae Mori), 간사이 야마모토(Kansai Ya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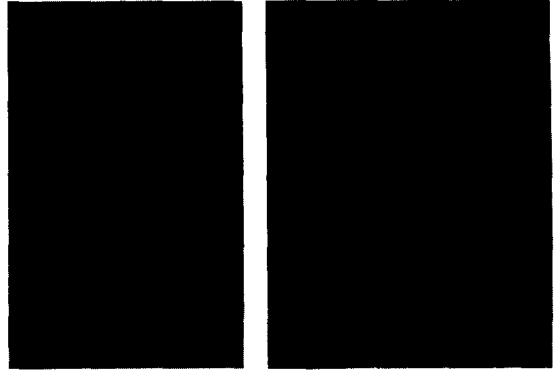
moto), 다케다 겐조(Taketa Kenzo)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하나에 모리는 에도(1600~1867)시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색상, 문양 등을 현대패션에 응용한 독특한 작품세계로 정평이 나있다. <그림 6><sup>37)</sup>은 간결한 실루엣에 비대칭 네크라인으로 처리하고 나비, 꽃, 구름 등의 커다란 모티브로 일본의 전통적인 장식미를 현대화한 작품이다. 또한 <그림 7><sup>38)</sup>은 일본의 전통극 노(能樂)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역시 꽃, 식물, 나비문양을 입체적으로 조화시켜 일본의 장식미를 느끼게 해 주었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

또한 일본의 화려한 꽃 문양 프린트를 이용한 작품으로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에서 명성을 얻은 다케다 겐조는 포클로어(Folklore)룩과 에스닉 룩으로 정평이 나있다. 패션에 인생과 자국의 긍정적 모습을 담으려 했던 겐조의 作品의 특징은 다양한 꽃무늬의 모티브와 다양한 원색의 배색으로 안티모드적인 경향이 짙다. 그의 작품 세계는 바로크적인 장식적 감각, 단순성, 절제된 형태미로 집약될 수 있으며, 오리엔탈과 자포니즘을 테마로한 이 작품에서 禪美學的 요소와 화려한 표면 장식적 요소를 절충적으로 응용한 일본 미학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8)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역시 일본적인 얇음을 이용한 작은 문양과 꽃 문양이 조화된 프린트 직물을 겹치기 효과로 구성하여 패턴 온 패턴의 장식적 재미와 함께 일본풍의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그림 9><sup>39)</sup>은 일본 꽃 문양의 화려한 프린트로



<그림 9>    <그림 10>

비정형적인 스커트를 구성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작품이다. 일본의 전통적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이세이 미야케는 꾸밈과 반꾸밈의 일본적 미의식을 다양하게 패션에 연출하여 일본 전통기법을 패션산업에 접목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불규칙하게 모양을 이룬 섬유조각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세계는 기존의 서구의 장인적 봉제술에 의한 정형화된 구성미를 무시한 것으로 서구 패션에는 안티쿠튀르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동방의 충격'으로 강한 자극을 주었다. <그림 10><sup>40)</sup>은 일본의 전통 복식인 기모노, 하카마, 하오리를 현대적으로 루즈하게 변형시켜 회화적인 화려한 문양의 장식적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전통복식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장식미로서 색을 중첩시켜서 나타나는 襲色의 배색미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전통 습색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프리즘 콜라주"라는 타이틀로 유머적이고 재미와 감성을 자아내는 유희적 작품을 구성하였다. 7색의 투명과 반투명 소재의 <그림 11><sup>41)</sup>은 커다란 장방형의 천을 중첩시켜서 무지개 빛 현대를 표현하였다.

2) 교태미(嬌態美)

전술한 바와 같이 염의 미의식은 화려함과 연결지어 관능미, 감각미를 표현하는 윤기나는 색채감이 넘치는 연애적 정서와 연관된 교태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서양적 '관능미'의 용어보다는 '교태미'로 선택한 이유는 일본인 특유의 수줍고 절제되면서 내면



&lt;그림 11&gt;

의 적극성을 취하는 은근미의 교묘한 이중성에서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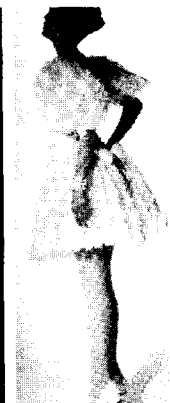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일본 현대 여성패션의 오염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 특유의 '가와이이'(可愛い) 경향으로 일본인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미의식의 하나이다. 이는 서양식 개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眉態와는 거리가 있으며 '귀여우면서 사랑스럽고, 멋있으며 산뜻하다'고 하는 일본 십대들의 심상을 표현하는 모든 의미가 뒤섞인 수식어로서 여기엔 억제와 절도가 숨겨져 있다. 즉 어렵풋하게 애뜻한 감성으로 관능성의 상징적 의미가 내재된 것이 일본적 감성의 관능미로 인지된다. 이는 일본 예술의 특성을 인상성, 장식성, 상징성, 감상성의 4요소로 지칭한 쓰지노부오의 견해에서도 공감되며, 그 특징은 감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애뜻한 정감'의 '모노노아와레'에 대응하는 정감과 정취성의 관능미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의 십대 패션산업을 정복하려면 바로 이 '가와이이'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의 가와이이 열풍은 지속적이고 뜨겁다. 트렌드에 따라 패션 컨셉을 결정하는 서구 패션계와는 달리 일본의 십대패션산업은 전적으로 도쿄소녀들의 '가와이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움직인다.<sup>42)</sup> 이러한 '가와이이'의 이미지는 시대 유행과 기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창출되지만, 그 밑바닥에 스며 있는 기본적인 미의식의 근원은 같다. 현재 도쿄 소녀들을 가와이이로 정의하는 것은 주름진 핑크색 셔츠처럼 귀여울 수도 있고 비닐 미니스커트처럼 화려한 것 일 수도 있다. 30~40대 중년부인들을 겨냥한 오바짱(小母) 가와이이 패션이라는 말도 있다. 중년의 연령층임에도 성숙한 여성미보다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멋있는 그러면서도 수줍은 듯 하고 이성

을 의식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내재된 그러한 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가와이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교태미의 용어상 의미는 시각적으로 농염한 관능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양적 관능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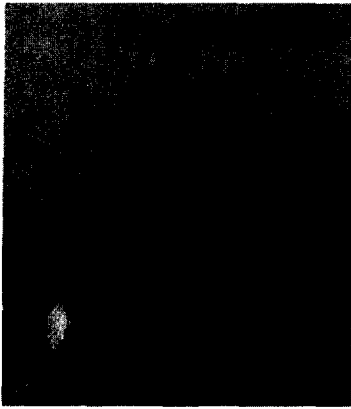
'교태미'로서 인지되는 가와이이한 일본 여성패션의 디자인 특징은 여성적인 디테일 장식과 변형, 꽃 문양을 특징으로 한다. 디자인의 세부사항을 러플이나 리본 장식으로 변형, 비대칭 등을 통해 장식하고, 소녀적인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다채로운 꽃 문양이 선호된다. <그림 12><sup>43)</sup>는 요지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1997년에 소개된 웨미닌룩으로 목선을 드러내고 비대칭적인 헴라인에 셔링장식을 하며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리틀걸 룩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데 좌우비대칭의 일본 특유의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그림 13>은 역시 상의를 러플 처리하여 귀여운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또한 비대칭으로 레이어드된 스커트에서 일본적 감각이 느껴지는 하나에모리 작풍이다.



&lt;그림 12&gt;



&lt;그림 13&gt;



<그림 14>

또한 이세이 미야케는 잘라 붙이기, 겹쳐잇기, 찢어 붙이기 등으로 꾸밈고 비대칭적 패턴을 대위법 구성으로 전개하는 전통 공예기법과 유사한 소재표면의 변형과 플리즈 가공을 통해 독특한 표면장식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크 프르트(frankfurt) 발레단의 춤사위 속 다양한 인체 동작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미야케는 무용수의 인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서 옷의 기능성과 모든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가벼운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플리즈 가공을 하고 이를 人体의 다양한 움직임의 기능성을 고려한 커팅 기법으로 구성하여 표면장식에 의한 독특한 조형미를 통해 일본 특유의 관능적 교태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4)<sup>44)</sup>

### 3) 과장미-꾸밈의 유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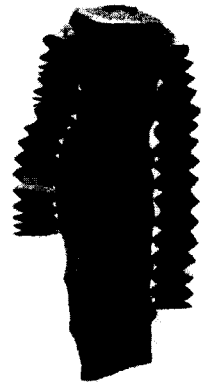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헤이안 시대의 '다케다카시'의 숭고적 미의식은 모든 예술형식에 거대한 과장미를 낳게 하였다. 또한 무사들의 허세에 대한 과도한 영웅주의적인 의식은 꾸밈 문화에 활기를 띄게 하였고 모모야마시대에는 '허세'를 대신하여 꾸밈의 유희를 상징하는 '괴이함'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전통복식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상의 과장은 현대 일본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되어 70년대 유럽패션계에 빅룩, 레이어드룩으로 소개되었고, 이외 장식적 특성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션이 되었다. 장식적 측면에서 과장미에 의한 빅룩, 레이어드룩에 대해서는 이

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주지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꾸밈 문화의 과장미를 유희적으로 표출한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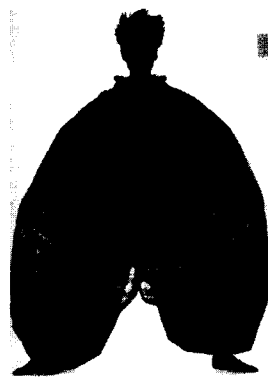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과장미는 풍류, 사치스러움, 허세, 과상함, 본뜨기, 멋<sup>45)</sup>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미술의 장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형태의 변형에 의한 왜곡, 특수 표면효과를 이용한 형태의 과장된 변형도 장식적 측면에서 과장미로 이해하였다. 미야케는 특히 형태의 변형과 왜곡에 의한 '꾸밈'과 '반꾸밈'적 유희성을 나타내는 작품구성으로 정평이 나있다. 1974년은 다케다 겐조, 이세이미야케가 스타적인 존재로 부각되면서 이들에 의한 빅룩과 루즈룩,<sup>46)</sup> 레이어드의 패션이 주목을 받았다.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리고 일본 전통직물에 관심을 갖고 원색의 천에 퀼트를 하고 기하학적 문양의 스티치를 한 刺子(Sashiko), Shijiraori, Oniyoryu 등의 소재로 현대의상 제작을 시도하기 위해 부피감을 강조하고 원가절감을 위해 전통 공예기법을 기계생산으로 대치한 빅룩을 소개하였다.(그림 15)<sup>47)</sup>

전술한 감상과 익살<sup>48)</sup>의 오카시는 꾸밈 미의식의 유희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색과 형태의 변형을 통한 우아한 유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16><sup>49)</sup>는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 'Jumping'으로 이는 다색상의 배열을 통해 신체 일부를 과장적으로 표현하여 지속적인 움직임 강조한 형상<sup>50)</sup>이며, 유희적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일본 전통예술에서 '꾸밈'과 '유희'가 예술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색종이를 다양하게 조합시키는 종이공예 장식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야케는 1976년에는 옷이 제2의 피부이자 인체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현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능적으로 인체를 감싸는 캡슐형태의 의상구성(그림 17)<sup>51)</sup>을 하여 독점적인 동양스타일 의상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작품으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전통의상 하오리(상의)와 하카마(바지)를 비정상적인 크기로 확대하여 과장된 조형미로 눈길을 끌기

도 하였고,<sup>52)</sup> 카부키 의상에서 영감을 딴 8m원형의 천으로 구성된 화려한 대형 꽃문양으로 장식된 의상을 발표하여 유럽 패션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sup>53)</sup>

### V. 결 론

본 논문은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로서 꾸밈 문화를 중심으로 1. 일본 미의식의 역사적 변천사를 살펴서 2. 꾸밈 문화를 대표하는 특징적 미적이념을 도출하여 3.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 일본 미의식의 변천사를 통해 꾸밈 문화의 근원이 된 정신사적 배경으로는 고대의 神道를 근본으로 불교의 이념이 삽입되어 형성된 신불유습 사상이 갖든 호색적인 풍류의 미감은 헤이안 시대의 꾸밈의 열정으로 이어졌는데, 이 시대에는 헤이안 시대의 귀족사회를 대표하는 불교문화와 중세이후 밀교 정토교에 의해 내세 염원적 관념이 발달함으로써 유태주의적 생활관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꾸밈의 미의식을 탄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현대 일본패션에 나타는 꾸밈미학의 유형

미의식	미적범주	대표적 디자이너	패션룩	디자인 특성	표현기법	
艶의美	화려미	미야비 아와레	하나에 모리 레이 카와쿠보 다케다 겐조 간사이 야마모토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레이어드룩 포클로어룩	비정형성 불규칙성 비대칭성 장식성 습색의 배색미 꽃, 나비, 구름 등 전통문양의 변형 전통문양 중첩성	질라붙이기 겹쳐입기 찢어붙이기 겹치기 소재의표면의 변형 커팅기법
	교태미			가와이이룩 웨미닌룩 리틀걸룩	여성성-소녀적 이미지 비대칭성-리플, 리본-서링장식	
崇高美	과장미 유희미	다케다카시 · 오카시	이세이 미야케 레이 카와쿠보	빅룩 루즈룩 레이어드룩	비정형성 불규칙성 비대칭성 과장성 중첩성 유희성	형태의 변형, 왜곡 특수표면효과 겹치기

들재, 꾸밈 文化를 대표하는 미적 이념으로서는 艷(艷)의 美學과 崇高의 美學으로 축약된다. 꾸밈 미의식의 근원은 奈良시대의 미야비(雅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는 윤리적·政敎的 측면과 好色·艷麗와 같은 감각적·유미적 측면의 양면성이 내재하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風流」가 미야비로 전환되어 감각적·유미적 측면의 文化이념으로 발전되어 일본 특유의 독자적 美로서 꾸밈 文化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꾸밈의 美는 '요염', '우아', '품위', '화려' 등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관능적 쾌감, 호색탐미(好色耽美)의 精神的 표징으로 상징되었다.

또한 헤이안 시대의 다케다카시(長高)는 '웅대', '위대', '기품'의 의미를 지닌 崇高의 美學을 탄생시켰고, 이는 유교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된다.

셋째, 艷의 미의 미적 범주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意匠과 연관되며, 이는 화려미, 교태미로 인지된다. 화려미는 장식적 요소로서 전통복식 문양, 염색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전통적 장식요소를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응용한 디자이너로 하나에모리, 간사이 야마모토, 다케다 겐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艷의 미는 관능미와 감각미를 표현하며 중세 가학이나 일본 전통 무극에서 나타나는 '감출수록 더욱 아름답다'고 하는 은폐의 미로서 수줍고, 절제되면서 내적으로 적극적 자세를 취하는 측면에서 교태미로 이해하였으며, 이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산뜻한'의 의미가 내재된 일본인 특유의 감성미로 인지된다. 교태미로 인지되는 '가와이이'한 일본 여성패션의 특징은 여성적인 디테일 장식과 변형, 꽃문양을 특징으로 하며 러플, 리본장식 등의 다양한 변형과 장식을 통해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이미지의 은근한 관능적 미를 나타낸다.

꾸밈 미의식의 또 다른 미적이념인 다케다카시의 송고미는 모든 예술형식에 거대한 과장미를 낳게 하였으며, 이는 전통복식에서 중첩에 의한 형태의 과장으로 표현되어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작용되었고, 70년대 유럽패션계에 빅룩, 레이어드룩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이는 풍류, 허세, 괴상함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미술의 장식적 측면이 고려되어 형태의 변형에 의한 왜곡, 유희적 특징 등이 이세이 미야케, 다케다 겐조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이상을 통하여 현대 일본패션 디자이너들은 자국의 역사적 미의식을 철저히 익혀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패션 창조의 영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시대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표출된 독특한 미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다양한 예술문화 창조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세계패션 선도의 리더로서 당당히 대접받고 있는 그들의 활약은 이러한 그들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서구적 감각에 조화시켜 승화시킨 집념과 노력을 통한 창조의 결정체이며, 이러한 독자적 요소는 서구세계에 새로운 물결의 신선한 충격으로 패션의 한 장을 열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을 야기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고대(아즈카)시대에 우리의 복식문화를 일본에 전한 우리 한국이 현재 세계패션 대열에서 처하고 있는 위치를 숙지해 볼 때, 자국의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여 응용·창조·발전시켜나가는 일본 디자이너들의 태도와 자세에서 많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는 시대에 따른 우리만의 독특한 미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우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미의식을 패션문화에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 참고문헌

- 1) 尾川正二, 김학현 역 (1999). 일본 고전에 나타난 미적 이념. 서울:翰林新書 일본학총서44. pp. 12~13.
- 2) 柳田聖山, 한보광 역 (1995). 禪과 日本文化. 불광출판부. p. 72.
- 3) 尾川正二, 앞의 책, p. 116.
- 4) 尾川正二, 앞의 책, p. 17.
- 5) 栗山理一, p. 28.
- 6) 尾川正二, 앞의 책, pp. 133-135.
- 7) 辻惟雄, 이원혜 역 (1994). 일본미술 이해의 길잡이. 서울: 시공사. p. 71.
- 8) 위의 책, pp. 25~26.
- 9) 일본 고유의 민속 신앙.
- 10) 위의 책, pp. 43~45.

- 11) 무라카즈시게요시 (1989). *일본의 종교*. 서울: 예진, pp. 55~61.
- 12) 위의 책, pp. 65~73.
- 13) 尾川正二. *앞의 책*, p. 14.
- 14) 이회승 감수 (1974). *에센스 국어사전*, p. 1521.
- 15) 위의 책, pp. 71~75.
- 16) 辻惟雄. *앞의 책*, p. 68.
- 17) 栗山理一. *日本文學における 美の精造*, pp. 33~36.
- 18) *ibid.*, p. 38.
- 19) *ibid.*, p. 40.
- 20) *ibid.*, p. 41.
- 21) 辻惟雄. *앞의 책*, p. 48.
- 22) 和歌: 일본 고유형식의 시, 단가.
- 23) 色紙: 와카나 하이쿠(俳句)를 쓰기위한 네모진 두꺼운 종이
- 24) 辻惟雄. *앞의 책*, pp. 46~48.
- 25) 위의 책, p. 48. 삼십육인가집 '赤人集' 12세기 전반그림
- 26) 李熙昇 (1987). *에센스 국어사전*. 民衆書林, p. 210.
- 27) 尾川正二. *앞의 책*, p. 109.
- 28) 尾川正二 (1999). *앞의 책*, pp. 95~108.
- 29) 이상엽. *앞의 책*, p. 48.
- 30) 辻惟雄. *앞의 책*, p. 112.
- 31) 위의 책, p. 86.
- 32) *앞의 책*, p. 65.
- 33) Alan Kennedy (1990). *Japanese costume: History traditions*, Paris: Adam Biro, p. 28.
- 34) 어떻게 입나? 문신과 화장, 日本文化の理解, 자료검색 일 2003. 10. 21, 자료출처: <http://www.paichai.ac.kr/~yjkim>
- 35) 辻惟雄. *앞의 책*, p. 40.
- 36) 増淵宗一 (1984). *裝飾, 講座美學2*. 東京大學出版會, p. 5
- 37) Hanae Mori Collections 99/00 A·W p. 43.
- 38) *앞의 책*, p. 522.
- 39) east meets west, p. 69.
- 40) east meets west, p. 104.
- 41) Kazuko Sato, Raymond Meier (1999). *Issey miyake—making things*. Scalo Znrch-NY, p. 55.
- 42) Internett, CNN, com Showcase. 中央일보.
- 43) Yohji Yamamoto Spring (1996). *Women'S ready to wear*
- 44) Kazuko Sato, Raymond Meier. *op. cit.*, p. 25.
- 45) 辻惟雄. *앞의 책*, p. 68.
- 46) 千村典生 (2002). *History of fashion*. 平凡社, p. 149.
- 47) *ibid.*, p. 34.
- 48) 栗山理一. *앞의 책*, p. 60.
- 49) Kazuko Sato, Raymond Meier. *op. cit.*, p. 66.
- 50) *ibid.*, p. 67.
- 51) Nicholas Callaway (1987). *Issey miyake photographs by irving penn*. Little, Brown & Company, p. 21.
- 52) *ibid.*, pp. 153~154.
- 53) *ibid.*, p. 156.